

## 나뭇잎이 떨어질 때까지 나무를 사랑하라.

Love the trees until their leaves fall off, then encourage them to try again next year. (Chad Sugg)  
나뭇잎이 떨어질 때까지 나무를 사랑하라,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엔 다시 나뭇잎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라. (채드 서그)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접한 채드 서그(Chad Sugg)는 미국태생의 젊은(1986-) 청년입니다. 그는 16세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가수이자 작사가 겸 작곡가(singer-songwriter)이며 시집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한마디로 종합(?) 예술가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종합 예술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하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아픔이나 상처를 말끔하게 치유해 주기까지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까지 나무를 사랑하라,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 다시 나뭇잎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라.”는 그의 말은 나의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고 ‘그래! 맞아’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무처럼 사람들의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저는 태평양 바다 건너에 사는 한 청년의 글을 읽고 그의 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어떤 모양을 한 사람이건 그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설령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가 하는 일을 멈추기 전까지는, 그 일로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라. 이것이 사랑이다. 만일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력이 소진되어 지치게 되면, 그때는 그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본인이 하고자 했거나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양상한 나뭇잎을 가지고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있지는 않은가요?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나무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진 후에는 내년에 다시 새로운 잎을 싹틔우고 자랑스러운 나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시오.